

# 張介賓의 醫學倫理 思想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金容辰

金容辰\*

## 關於張介賓醫學倫理思想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金容辰

金容辰

目前, 隨着與醫學相關的現代科學技術的急速發展, 醫療界對醫學倫理的要求越來越高. 醫學倫理思想在東洋主要圍繞醫生的倫理而發展起來. 尤其到了明代, 張介賓根據『素問·方盛衰論』中“不失人情”文章, 提出了因患者與監護人以及醫者之間各有其具體情況, 所以必須分別加以妥善了解, 即主要圍繞醫生倫理思想言及患者或監護人的具體情況. 綜觀其內容可知, 在患者方面, 張介賓認為醫生應事先應預知患者的各種情況, 如若患者心里存有測試醫生能力的想法, 那麼治療效果就不會好. 在監護人方面, 張介賓認為由於個人的親分或利害關係, 往往會使患者和醫生面臨窘境, 這一點應加以注意. 在醫生方面, 張介賓認為醫生應熟知自身的醫學能力, 不能欺騙患者, 也不能說誹謗其他醫生的話.

另外, 張介賓從其普遍性醫學倫理思想, 認為醫師應具備聰明的資質, 必須有一顆熱愛生命的心, 而且還認為醫生應多讀醫經, 多拜良師, 正確地掌握藥物及診斷治療疾病的方法.

Key Words : 張介賓, 醫學倫理, 不失人情.

## 1. 緒論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와 관계된 분야에서 배아복제, 안락사, 인공유산 진료거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생명윤리라는 용어조차 없었지만 의학윤리사상은 이어져 왔다. 오늘날에도 생명윤리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의학윤리인 바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sup>1)</sup>.

보통 사람들은 매일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해 나간다. 하지만 윤리의식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윤리의식이 부족한 의료인의 경우라면 의료활동을 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비인간적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의학윤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의학에서의 의학윤리는 『素問·五過論·微四失論』 등에서 중점적으로 언급된 이래 당대 『千金要方·大醫精誠』과 송대 『醫說·醫藥之難』 등에서 더욱 체계화되었고, 후세로 내려 오면서 점차로 더욱 구체화되어 명대 『萬病回春·醫家十要·病家十要』, 그리고 『外科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 -A00044)

\* 교신저자: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042-280-2626, king@dju.ac.kr

1) 金熙洙, 文國鎮, 玄源福, 李廷珠.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 및 국가적 대책.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제 39집. 2000. p. 7.

正宗醫家五戒十要』 등의 강령으로 형성되었으며, 청대에 이르러서는 『醫學心悟·醫中百誤歌』와 같이 기억하기 쉽도록 歌訣形式으로 요약하였다<sup>2)</sup>.

이상과 같이 발전되어 온 의학윤리에 대한 사상은 명대 張介賓에 의하여 의사의 윤리와 환자의 윤리와 보호자의 윤리라는 범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李中梓가 수용하여 『醫宗必讀·不失人情論』을 저술하여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명대 張介賓의 의학윤리사상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類經』의 醫學倫理思想

張介賓은 『類經·脈色類·診有大方』<sup>3)</sup>에서 人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患者와 保護者, 그리고 醫療人 각각의 情況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患者의 人情에 대하여 말하면 患者의 人格, 體質, 生活習慣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七情의 狀況과 臟腑의 기능이 모두 다른 情況이 있으며, 음식이나 기호품, 行動舉止에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情況이 있으며, 貧富貴賤에 따른 활동이 각기 다른 情況이 있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호를 잘 해주어야 하는 情況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생활하지 못하므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醫師는 반드시 患者의 여러 가지 情況을 잘 살펴 診療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患者의 상태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중에는 主觀이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眩惑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 있

고, 富貴하였다가 亡하여 貧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 너무 느긋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습관에 맞는 것만을 원칙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人蔘은 補藥이고 大黃은 瀉下藥이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쓰지 말라는 생각이 깊어 다른 醫師의 處方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증상을 숨겨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人格, 知識水準, 習慣, 貧富貴賤의 差異 등이 모두 질병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醫師는 이러한 상태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의사에게 診脈만 하게 하여 의사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상태를 진맥으로만 의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소상히 말하고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질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환자가 의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의 질병을 숨기고 진찰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醫師도 望聞問切을 모두 참고하여 診斷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傍人之情이라고 하여 患者 주변사람들의 의학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환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등의 情況에 대하여 말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患者 주변사람들은 진실을 알 수 없는 뜬소문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잘못된 이론에 집착하거나 아주 많은 유사한 증상들을 구분하지 못하여 환자를 현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是非를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疾病의 標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환자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여 조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의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에게 의사를 추천할 때에도 우연히 질병을 고친 것으로 인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거나 의사의 외모나 장담하는 것을 보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물을 탐내어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2) 金容辰, 醫學倫理에 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p. 184.

3) 張介賓著, 李南九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 179-182.

이상과 같이 환자 주변의 사람들이 환자나 의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同道人之情이라고 하여 같은 醫療人으로서의 정황에 대하여, 말을 잘하거나 아첨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무식한 부류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좁은 소견으로 의학의 이치를 안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속이거나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부류를 말 잘하는 무리라고 하였으며; 醫書는 알지도 못하며 남들에게 얻어들은 말을 하고, 환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치료를 하거나 아첨하는 말로써 치료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부류를 아첨의 무리라고 하였으며; 혹은 아는 것이 별로 없이 남들이 잘하지 않는 기이한 것만을 쫓아 신으로부터 얻은 處方이거나 秘方이라고 하고 脈으로 禍福을 점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이를 사기꾼의 무리라고 하였으며; 혹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길땀만 내며 다른 사람들은 우매하고 자신만이 명철하다고 과장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性品이 거칠고 孟浪한 무리라고 하였으며; 혹은 남을 비방하면서 疾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庸劣한 것이니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良心이 이미 없는 小人輩의 무리라고 하였으며; 貪慾이 심하고 醫學的인 지식이 없으며 사람의 性命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疾病治療에 있어서도 요행히 좋은 處方을 구해 治療하거나 實驗삼아 治療해 좋은 효과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러한 경우를 僥倖을 貪하는 無知한 무리라고 하였으며; 의학적인 지식이 서로 같지 않아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의견통일이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기이한 질병에는 아주 비상한 의사만이 제대로 治療할 수 있는 것처럼 名醫를 잘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庸劣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무리라고 하였으며; 의사들 중에는 疾病治療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익만을 취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에게 治療를 맡기는데 한결같지 않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人情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人情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內經』에서도 “不失人情”이라하여 人情을 잃지 않는 것이 醫師로서 가장 중요한 德目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활동을 하므로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질병이 진행되므로 의사는 疾病自體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질병을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장은 患者와 保護者 그리고 醫師사이에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환자는 환자대로의 처지가 있고, 보호자는 보호자로의 처지가 있고, 의사들 사이에도 각기의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그 이해관계 또한 다르게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의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李中樞의 『醫宗必讀·不失人情論』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두 문장의 발간년도를 보면 『類經』은 1624년에 발간되었고 『醫宗必讀』은 1637년에 발간되어, 張介賓이 환자 보호자 의사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주었고 李中樞가 이를 인용하여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 3. 『類經圖翼』의 醫學倫理思想

張介賓은 또한 『類經圖翼·自序』에서 “夫生者是天地之大德也라 醫者是 贊天地之生者也라”<sup>4)</sup>고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天地의 德化를 입은 것이고, 醫師는 天地의 大德인 생명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欲補天功인대 醫其爲最라”<sup>5)</sup>고 하였다.

醫師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의 資質에 대하여 “不有精敏之思면 不足以察隱하고 不有果

4)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 p. 1.

5)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 p. 1.

敢之勇이면 不足以回天하고 不有圓融之智면 不足以通變하고 不有堅持之守면 不足以萬全이라”<sup>6)</sup>고 하여 精敏한 思考力과 果敢한 勇斷性, 두루 융합하는 智慧,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좋은 의사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질병을 정확하게 판별해 내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정확한 판단을 끝까지 고수하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네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의사로서의 자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만이 “窮理盡性하고 格物致知”<sup>7)</sup>하여 聖人の 마음에 도달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醫經은 옛 성현들의 마음을 전하는 저작이므로 후인들이 方書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여, 『內經』, 『難經』 등을 공부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주는 피해가 아주 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聖人の 心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內經』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醫者는 理也니 理透心明斯至矣라”<sup>8)</sup>하여 醫師는 理致를 깨닫고 마음이 밝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마음이 밝게 되는 방법으로는 “欲明於理면 必須求經이라 經理明而後博采名家 廣資意見하고 其有不通 神入聖者는 未之有也라”<sup>9)</sup>하여 醫經을 많이 읽어서 의학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밝힌 후에 좋은 스승에게서 많이 배워 자신의 醫學的 識見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精敏한 思考力과 果敢한 勇斷性, 두루 융합하는 智慧,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 등의 자질을 가지고 『內經』, 『難經』 등의 醫書를 많이 읽고 좋은 스승에게 잘 배워서 醫學적인 識見을 넓혀야 한다고 하여 의사가 가져야 할 자질 및 공부하는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 4. 『景岳全書』의 醫學倫理思想

『景岳全書』에서의 의학윤리와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論治篇』에서는 疾病治療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특히 “凡看病施治는 貴乎精一이라 蓋天下之病은 變態雖多로대 其本則一하고 天下之方은 活法雖多로대 對證則一이라 …… 故內經 曰 治病必求其本이라하니 是以凡診病者가 必須先深病本하고 然後用藥이라 …… 而其意則一也니 方爲高手라”<sup>10)</sup>하여 醫師들이 疾病을 辨證論治하는데 ‘精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萬病은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根本은 하나이고, 그것을 치료하는 處方은 비록 많이 있지만 그 증상에 맞는 處方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원칙은 『內經』에서 말한 “治病必求其本”이다. 그러므로 먼저 질병의 근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用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사의 醫學知識이 방대하고 疾病을 관찰하는 안목이 정밀하여야 의학의 高手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精一’에 대하여서는 “故로 凡施治之要는 必須精一不雜하니 斯爲至善이라 …… 若用制不精하면 則補不可以治虛하고 攻不可以去實하니 鮮有不誤人者矣라”<sup>11)</sup>고 하여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니 處方을 구성할 때 정밀하지 못하면 補瀉로 虛實의 상태를 고치지 못하게 되니 환자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醫師의 ‘精一’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한 처방에 십여종류의 藥物이 구성되어 精一하지 못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不知相制相使之妙者라<sup>12)</sup>”고 하여 處方構成에 있어서 相制 또는 相使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精一’의 실례를 들어 “觀仲景之方컨대 精簡不雜하야 至多不過數味하니 聖賢之心을 自可概見이라”<sup>13)</sup>고 하여 張仲景의 傷

6)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 p. 1.

7)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 p. 1.

8)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 p. 1.

9)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 p. 1.

10)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1.

11)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2.

12)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2.

13)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2.

寒方이 ‘精一’의 대표적인 處方이라고 하였고, 부득이하게 藥物의 사용이 많아지는 경우를 “傷寒論之小柴胡湯은 以人參柴胡並用하고 陶氏之黃龍湯은 以大黃人參並用하니 此正精專妙處니 非若今醫之混用也라 能悟此理하면 方是眞見中活潑工夫라”<sup>14)</sup>고 하여 여러 가지 藥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藥物理論을 정밀하게 운용하여 處方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張介賓이 살던 당시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공부를 하여 그 진면목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또 “治病用藥에 本貴精專하고 尤宜勇敢이라”<sup>15)</sup>고 하여 處方을 구성할 때에는 精專하면서 과감하게 하여야 정확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고, “至若東垣之方하얀 有十餘味及二十餘味者는 此其用多之道로대 誠自有意하니 學者欲效其法하니 必須總會其一方之味하고 總計其一方之性이라”<sup>16)</sup>고 하여 東垣의 處方에서 20여가지의 藥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서는 한 處方 전체의 性味를 따져야 한다고 하여 약물 각각의 性味보다는 處方全體의 性味를 하나로 보면 ‘精一’한 처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東垣之法非不善也라 然이나 余則寧師仲景하고 不敢宗東垣者하니 正恐未得其清하야 先得其陰하니 其失者豈止一方劑也哉리오 明者宜辨之니라”라고 하여 張介賓 자신은 東垣의 이론도 좋지만 張仲景의 의학을 깊이 공부하여 의학의 精一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이어서 “今之醫者는 凡遇一證에 便若觀海望洋하야 茫無定見하니 則勢有不得不爲雜亂而用廣絡原野之術이라”<sup>17)</sup>고 하여 張介賓이 살던 당시의 의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니 그 예를 들면 “其有最可哂者는 則每以不寒不熱 兼補兼瀉之劑로 確然投之하고 極稱穩當하니 此何以補其偏而救其弊乎리오 又有以治風治火治痰治食之劑兼而用之하고 甚稱周備하니 此何以從其本而從其標乎리오 …… 若此者는 所謂以藥治藥尙未遑하니 又安望其及於病耶리오 …… 亦不

知其補之爲害와 消之爲害也라 …… 是以白頭圭匕 而庸庸沒齒者가 其咎在於無定見하고 而用治之不精也라 使其病淺으로 猶無大害하야 若安危在舉動之間하니 卽用藥雖善이로대 若無膽量勇敢而藥不及病하야 亦猶杯水車薪하니 尙恐弗濟오 矧可以執兩端而藥有妄投者는 其害又將何如리오 耽誤民生이 皆此輩也니 任醫者는 不可不深察焉이라”<sup>18)</sup>라고 하여 의사가 寒熱補瀉를 겸하는 處方을 사용하고 風火痰食之劑를 兼用하면서 두루 구비한 處方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藥物로 藥物의 부작용을 治療하기 바쁜데 疾病을 치료할 수 없거나와 補瀉의 危害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醫學의 인 업적이 없는 의사는 자신의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고 用藥도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의사들이 藥物을 함부로 투여하게 되면 그 피해가 크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張介賓이 그 당시의 의사들에게 아주 정확한 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의사를 선택하는 환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氣味篇」에서는 의사는 약물의 性味를 잘 알아야 하고, 질병의 緩急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藥物衆多로대 各一其性하니 宜否萬殊하야 難以盡識하니 用者不得其要면 未免多誤라”<sup>19)</sup>고 하여 약물은 각각 자신의 성질이 있으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요점을 알아야 잘못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學者味其眞性 而惟按圖以索驥하니 所以用多不效하야 益見用藥之難矣라”<sup>20)</sup>고 하여 요즘의 의사들은 약물의 참된 성질을 모르고 잘 낫기만을 바라니 약물을 사용하여도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用藥之道無他也니 惟在精其氣味라 識其陰陽하면 則藥味雖多로대 可得其要矣라 凡氣味之辨은 則諸氣屬陽하고 諸味屬陰이라”<sup>21)</sup>고 하여 약물의 참된 성질은 각 약물의 氣味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14)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2.  
 15)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3.  
 16)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2.  
 17)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1.

18)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p. 21-22.  
 19)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6.  
 20)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6.  
 21)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26.

여기서는 의사는 반드시 약물의 氣味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標本論」에서는 “病有標本者하니 本爲病之源이오 標爲病之變이라 病本惟一이로대 隱而難明하고 病變其多로대 顯而易見이라 故今之治病者가 多有不知本末 而惟據目前하니 則最爲斯道之大病이라”<sup>22)</sup>고 하여 질병에는 標本이 있는데 本은 잘 나타나지 않고 標는 잘 드러나는 것이므로 요즘의 의사들이 질병의 드러난 부분만을 살피고 치료하려고 하니 의사들에게는 크게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患者를 진찰할 때 標本을 정확하게 살피고 치료에 임하여야 실수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今見時情컨대 非但不知標本 而且不知緩急이라 不知標本하면 則但見其形이로대 不見其情이오 不知緩急하면 則所急在病 而不知所急在命이라 故每致認標作本하고 認緩作急하야 而顛倒錯亂하면 全失四者之大義니 重命君子는 不可不愼察於此라”<sup>23)</sup>고 하여 지금의 의사들이 標本은 알지만 그 緩急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의사는 질병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질병치료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求本論」에서는 “萬事皆有本 而治病之法은 尤惟求本爲首務라”<sup>24)</sup>고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데 疾病의 근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經口 衆脈不見하고 衆凶弗聞하며 外內相得하면 無以形先이라 하니 是誠求本之至要也라 苟不知此하면 必庸流耳라 故明者獨知所因 而直取其本하면 則所生諸病은 無不隨本皆退矣라”<sup>25)</sup>고 하여 眞藏脈이나 기타 나쁜 증상이 없으면 形證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근본을 생각하지 않으면 庸醫가 되는 것이니 明醫는 원인을 생각하고 그 根本에서 파생된 病證을 살피 疾病을 治療하

여야 한다고 하여, 질병의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子故曰 醫有慧眼하야 眼在局外하고 醫有慧心하야 心在兆前하니 使果能洞能燭으로 知幾知微하니 此而曰醫라하니 醫云乎哉리오 他無所謂大醫王矣로다”<sup>26)</sup>라고 하여 慧眼과 慧心이 있어 질병의 徵候를 잘 살피야 진정한 의사라고 하였으니 의사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臟象別論」에서는 “夫不變者는 常也오 不常者는 變也라 人之氣質有常變하고 醫之病治有常變하니 欲知常變하면 非明四診之全者不可也라 設欲以一隙之偏見 而應無窮之變機는 吾知其遺害於人者多矣라”<sup>27)</sup>고 하여 의사는 四診法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天年論」에서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氣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天年’이라고 하는데 이 天年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열가지인데 天刑 地殺 人禍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종류를 “再若三者之外에 則凡孽由自作而致不可活者는 猶有六焉하니 何以見之오 則如酒色財氣와 及功名之累와 庸醫之害니 皆是也라”<sup>28)</sup>고 하여 飲酒, 好色, 財物, 羈氣와 功名心과 庸醫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庸醫로 인한 피해 또한 커다란 것이라고 하면서 의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凡疾苦之望醫는 猶凶荒之望歲하니 其懇其切이 其念何如리오 第此中神理가 微妙難言하니 使不有天之學과 絕倫之聰이면 則何以能聞於無聲하고 見於無迹하리니 直窺乎窈冥之鄉 而必得其情乎리오 使必得其人而後可以言醫하면 則醫不易談하니 蓋可知矣라”<sup>29)</sup>고하여 의사의 학식이 뛰어나고 총명한 자질이 있어야 아주 미묘한 증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치료에

22)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2.  
23)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2.  
24)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2.  
25)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3.

26)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3.  
27)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5.  
28)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5.  
29)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p. 36-37.

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雖未知神이로대 猶知形迹하니 此即今之上醫也 然此醫亦不易得이라”<sup>30)</sup>고 하여 환자의 정신상태의 변화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환자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치료에 임하는 上醫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醫師들을 당시에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庸醫多하니 則殺人亦多하고 每見其寒熱倒施하고 虛實謬認하니 一匕之訛로 吉凶隨應이라”고 하여 寒熱虛實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그만 실수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총명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의 세심한 변화까지도 파악하여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天壽를 누리려면 飲酒, 好色, 財物, 霸氣와 功名心과 庸醫에 의한 피해에 미리 대비하면서 “夫如是而培以爲善하고 存以無欺하고 守以不行險하고 戒以毋僥倖하면 則可全收其效矣리라”<sup>31)</sup>고 하여 착한일을 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으면 여섯가지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中興論」에서는 “故人於中年左右에 當大爲修理一番하니 則再振根基하면 尙餘強半하니 敢云心得하고 歷驗已多하니 是固然矣라 然而修理之說을 亦豈易言이리오 修國家는 良臣不易오 修身命은 良醫亦難이라 第觀從古至今컨대 數千年來에 凡得醫之全量者爲誰오 而今則曰 此는 醫也오 彼도 亦醫也라하니 又何良醫之多도리오 醫難言矣니 其母爲良醫之所惑이라”<sup>32)</sup>라고 하여 사람이 중년이후가 되면 몸이 손상되는 것이 많은데 의사가 이를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예로부터 사람의 몸이 손상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의사가 많지 않은데 요즘은 너도나도 모두 의사라고 하니 훌륭한 의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환자들은 의사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誤謬論」에서는 “揆度奇恆 道在於一이라하니 得一之精으로 以知死生이라 此는 卽斯道中精一執中之訓也니 凡天人之學이 總無出此라”<sup>33)</sup>하여 揆度 奇恆과 같은 診斷法을 사용할 때 精一함을 얻어야 死生을 판단할 수 있으니 醫師들이 精一執中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矧醫之爲道가 性命判於呼吸하고 禍福決自指端하니 此於人生關係에 較之他事爲尤切也라 以此重任으로 使不有此見此識하니 誠不可猜模嘗試以 誤生靈하고 矧立法垂訓이 尤難苟且하니 倘一言失當하면 則遺禍無窮하고 一劑妄投하면 則害人不淺하니 此誤謬之不容不正也라”<sup>34)</sup>고 하여 의사들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으니 더욱 중요한 것이니 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醫道の 精一함은 『內經』이후 간간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를 잘 계승하지 못하고 精一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賓自從斯道하야 常稽往古하니 所見軒岐之下에 凡明良繼出하야 何代無之로대 然必欲求其得中者는 則舍靈素之外에 似亦不多其人이라 蓋竊見相傳方論할새 每多失經意하고 背經旨하야 斷章取義하고 假借數語以飾一偏之詭說者가 比比其然이라 此總屬意見有不到하고 至理有未明이라 故各逞胸臆하야 用示已長하야 致令斯道失中하고 大違精一之義하니 此則醫之於人에 亦何賴焉이리오”<sup>35)</sup>라고 하였다.

「論時醫」에서는 “病有緩急하고 效有遲速하니 若以遲病而求速效하면 則未免易醫라 易醫多則高明本少하고 庸淺極多라하니 少不勝多하야 事必敗矣라 任醫須擇賢者 而於危急之際에 尤不可苟라 若彼宵小之輩가 惟妄術已長하야 好翻人按하니 不幸遇之하면 多致滯惑是非하니 生命所係不淺이라”<sup>36)</sup>고 하여 환자나

30)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7.

31)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7.

32)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39.

33)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52.

34)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52.

35)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52.

36)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5.

보호자들은 高明한 의사들이 부족하고 庸淺한 의사 많은 상황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醫師를 자주 바꾸지 말며 의사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病人善服藥者가 聞其氣하고 嘗其味하여 便可覺宜否之優劣하니 固無待入腹而始知也라 獨憫乎無識無知者는 但知見藥服藥 而不知藥之爲藥이오 但知見醫求醫 而不知醫之爲醫하니 亦可悲矣라”<sup>37)</sup>고 하여 약물을 잘 복용하는 사람은 약물의 상태만 보고도 처방의 優劣을 구분할 줄 아는 것처럼 의사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醫非小道記」에서는 “異人怒而叱曰 子非知醫者也라 既稱性命是關이라하고 醫豈小道云哉리오 夫性命之道는 本乎太極하야 散于萬殊하니 有性命然後에 三教立하고 有性命然後에 五倫生이라 故造化者는 性命之爐冶也오 道學者는 性命之繩墨也오 醫藥者는 性命之贊育也라 然而其義深하고 其旨博이라 故不有出人之智하고 不足以造達微妙하며 不有執中之明하고 不足以辨正毫釐하니 使能明醫理之綱目하면 則治平之道가 如斯而已라”<sup>38)</sup>하여 의학은 사람의 性命을 도와주고 기르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 이치가 깊고도 넓은 것이므로 智慧가 뛰어나고 執中할 수 있는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 의학의 이치를 알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能明醫理之得失하면 則興亡之機가 如斯而已오 能明醫理之緩急하면 則戰守之法이 如斯而已오 能明醫理之趨舍하면 則出處之義가 如斯而已오 洞理氣於胸中하면 則變化可以指計오 運陰陽於掌上하면 則隔垣可以日窺하고 修身心於至誠하니 實儒家之自治오 洗業障于持戒하니 誠釋道之自醫라”<sup>39)</sup>고 하여 醫理의 得失을 알면 흥망을 알 수 있고 醫理의 緩急을 알면 전쟁에서 지킬 줄 알고 醫理의 取舍를 알면 出處를 알고 마음속에서 理氣를 명확하게 알면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몸소 陰陽을 운행하면 담 너머의 것도 보이게 된다고 하여 의학의 이치에 통하여야 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又若陰陽不識 虛實誤攻하며 心粗膽大하야 執拗偏庸하면 非徒無益 而反害之之徒殆하니라”<sup>40)</sup>고 하여 陰陽을 알지 못하고 虛實을 잘못 공격하며 성격이 치밀하지 못하면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病家兩要說」에서는 患者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는 쓸데없는 말을 피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참된 의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쓸데없는 말을 피하라는 것에서는 “病之難也는 斯非常醫所能療라 …… 必有非常之醫 而後可療 非常之病이라 第以醫之高下가 殊有相懸하니 譬之升高者는 上一層有一層之見 而下一層者不得而知之오 行遠者는 進一步有一步之間 而近一步者不得而知之라 是以錯節盤根에 必求利器하고 陽春白雪에 和者爲誰오 夫如是는 是醫之于醫에 尙不能知하니 而矧夫非醫者야”<sup>41)</sup>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질병은 비상한 재주를 지닌 의사가 치료하는 것인데, 의사가 다른 의사를 보더라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참된 의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昧眞中之有假하야 執似是而實非오 鼓事外之口吻하야 發言非難하고 撓反掌之安危하니 惑亂最易라”<sup>42)</sup>고 하여 어떤 의사들은 是非를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말을 하여 惑亂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의사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又若病家之要是 雖在擇醫로대 然而擇醫非難也 而難於任醫오 任醫非難也 而難於臨事不惑하고 確有主持 而不致朱紫混淆者之爲更難也라”<sup>43)</sup>고 하여 환자는 의사를 잘 선택하여야 하는데 질병을 진찰하는데 미혹함이 없으며 확실한 주관에 있는 고명한 의사를

37)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5.

38)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7.

39)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7.

40)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7.

41)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p. 67-68.

42)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8.

43)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8.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夫任醫如任將하니 皆安危之所關오 察之之方이 豈無其道리오 第欲以愼重與否觀其仁 而怯懦者實似之 하고 穎悟與否觀其智 而狡詐者實似之하고 果敢與否觀其勇 而猛浪者實似之하고 淺深與否觀其博 而強辯者實似之라 執拗者若有定見하고 誇大者若有奇謀하야 熟讀幾篇에 便見滔滔不竭하고 道聞數語에 謂非鑿鑿有憑이라 不反者는 臨涯已晚하고 自是者는 到老無能하며 執兩端者는 冀自然之天功하고 廢四診者는 猶隕行之賭馬하고 得穩當之名者는 有耽閣之誤하고 昧經權之妙者는 無格致之明이라”<sup>44)</sup> 하고 하여 醫師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安危와 관계있는 것이니 將帥를 부리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모두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예를 들면 愼重함으로 仁을 보려고 하였으나 怯懦한 사람을 仁하다고 판단하거나 영리함으로 그 지혜를 살피려 하였으나 남을 잘 속이는 것을 지혜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必有小大方圓全其才하고 仁聖工巧全其用하고 能會精神於相與之際하고 燭幽隱於玄冥之間者는 斯足謂之眞醫 而可以當性命之任矣라 惟是皮質之難窺과 心口之難辨과 守中者無言과 懷玉者不銜는 此知醫之所以爲難也라 故非熟察於平時면 不足以識其蘊蓄하고 不愼信于臨事면 不足以盡其所長하니 使必待渴而穿井하고 鬪而鑄兵하면 則倉卒之間에 何所趨賴리오”<sup>45)</sup>라고 하여 大膽하고 細心하며 뛰어난 지혜를 겸비하고 행동이 方正하여야 하며 醫療技術 또한 뛰어나서 혼란할 때에 精神을 바로 잡아 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의사가 眞醫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료기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의사를 알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므로 평소에 어떤 의사가 참된 의사인가를 잘 살펴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환자들도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의사에 대하여 의사의 지식수준이나 성품 등을 미리 알아서 더 좋은 의사에게 질병치료를 부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5. 結論

張介賓의 저서에 나타난 醫學倫理思想들은 다른 의가들의 醫學倫理思想과 비교하면 환자·보호자·의사의 정황이 있음을 처음으로 언급하여 醫學倫理思想을 한단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환자의 人情에 대하여서는 환자의 性格, 體質, 生活習慣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여러 가지 情況을 잘 살펴 診療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질병을 숨기면 안된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人情에 대하여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환자에게 조언을 하여 환자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의사에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의사들의 人情에 대하여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환자를 속이거나 아첨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사들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환자나 보호자나 의사들은 각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므로 똑같은 疾病이라도 대하여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情況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內經·方盛衰論』의 “不失人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張介賓은 의사로서의 자질이나 지식 등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으니 의사의 자질에 대하여서는 좋은 의사의 자질에 대하여 의사는 깊고도 넓은 의학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며, 질병을 관찰할 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많은 질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가 알아야 할 지식들에 대하여서는 『內經』, 『難經』 등의 醫經을 많이 읽어서 의학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밝힌 후에 좋은 스승에게서 많이 배워 자신의 의학적 식견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약물에 대하여서는 약물의 참된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으므로 약물의 氣味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본

44)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8.

45)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p. 68.

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望聞問切의 四診法을 잘 활용하여 질병의 標本 및 緩急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약물의 기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한 用藥을 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특별히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도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에 임하여야 하니 우선 환자를 甘言利說로 현혹시키지 않는 좋은 의사를 찾아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치료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의사를 자주 바꾸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소에 의사들의 성품이나 의학지식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더욱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參考文獻

### <논문>

1. 金熏洙, 文國鎮, 玄源福, 李廷珠.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 및 국가적 대책.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제 39집. 2000.
2. 金容辰. 醫學倫理에 대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 <단행본>

1. 張介賓著, 李南九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2. 張介賓. 校勘景岳全書.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9.
3. 張介賓. 類經圖翼. 臺南. 西北出版社. 영인본.